

“두드리면 불교의 문 활짝 열려요”

종교를 몰으면 불교라고 대답하지만 엄마 따라 절에 가는 것이 고작이던 고등학생 영민이. 어느날 법회시간에 부처님 전생이기를 들었다. 깨달았다. 부처님의 전생은 원승이도 있었고 사승일 때도 있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내생에 난 무엇이 될까” 하는 고민에 잠도 잘 못 잤다. 엄마에게 여쭙봐도 잘 대답해주지 못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어떤 책을 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를 못했다. 그러던 영민의 눈에 속 들어온 책이 바로 <똑똑똑 불교를 두드리보자>였다.

청소년 눈높이 불서 ‘똑똑똑 불교를...’ 화제

문답식 해설... “궁금증 풀려요”

가정불화·가출 상담사례도 소개

이 책에서 장휘욱교수(동국대)는 전생과 현생, 내생이 있는 육도윤회의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셨다. 윤회는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한 인과의 법칙이라는 설명을 읽은 영민이는 자신의 계몽으로 내생에는 정말 소로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청소년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 가지기 쉬운 의문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전생의 문제이다. 이렇듯 전생, 참선과 깨달음, 불상에 절

은 왜 하는지에 대한 청소년 불자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책이 시공사에서 펴낸 <똑똑똑 불교를 두드리보자>이다.

마치 교리문답처럼 묻고 답하는 형식을 갖춘 1부 ‘꼬마성자들의 궁금증’에는 10개의 질문이 있다. 제일 먼저 절에 가면 착해지냐는 질문에 윤원철교수(서울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자기 수련이 중요하다”며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생활태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선하게 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의 자아론을 학파별로 설명한 ‘니도 천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철학과 과학이 생체체의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그 속으로 들어가 의미를 묻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는 ‘종교는 과학의 반대말인가?’, 기독교의 사랑은 신에 대한 절대 헌신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불교의 자비는 집착을 버리는 지혜를 근본으로 한다는 두 종교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는 ‘불교와 기독교는 동성동본?’ 기적이란, 절은 왜 하나, 삶은 괴로운가 등의 의문점들을 불교교리와 경전의 비유 등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2부 ‘생각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어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손가락 끝은 왜 보나?’의 경우처럼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세상보기를 시도한다. 특히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의분’, ‘수레를 채찍질할까, 소를 채찍질할까’ 등은 가정불화, 가출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과의 상담사례를 부처님의 비유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 불서나 성인용 불서들은 시중에 다량 출간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시각에서 접근한 청소년 전용 불서는 드물다. <똑똑똑 불교를 두드리보자>는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스님, 대학교 교수, 시인 등의 집필자들이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춰 펴낸 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건강 365일 <28> 피부병



<영재의원 원장>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생선 두드리기, 꽃가루 알레르기 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원인 규명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부병은 외부에서 독한 균이 침입해서 발생한다.

대상포진이란 병이 있다. 겉으로 빨갛게 발진이 되면서 속으로 추시고 결리며 통증이 온다. 한방병명으론 단독(丹毒)이라 한다. 이것도 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한 결과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부병은 내피조직의

된다. 이와 같이 피부에 난 병이라 하여 피부병으로만 봐선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간장의 기능과 연결시켜 봐야 한다. 음식에도 공함이 있듯이 약에도 체질이 맞는 약이 따로 있다. 체질별로 민간요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바이러스 침입으로 발생 태음인 뽕잎·취부리 복용효과

저항력·면역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한방에서는 피부병 폐장에서 관리한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폐장기능이 약하면 피부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하게 된다. 폐활량이 부족하면 단 뜻이다. 따라서 피가 탁해지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피부의 신축성이 떨어져 지혈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독균에 과잉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 피부병이다. 이차적으로 독균이 침입했다면 그 독을 해독시켜 주는 것은 간장이다. 간이 허약하면 독을 해독시켜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부병으로 발전

△태음인=뽕나무잎 8g, 취부리 8g, 황금 8g, 감초 4g를 달여서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취부리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돕고 황금은 간의 열을 식혀주며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고 뽕나무잎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돕는다.

△소양인=고삼 4g, 생지황 8g, 감초 4g를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열이 많은 소양인체질의 피부병은 태열이나 건선 악성피부질환이 많다. 비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이다.

△소음인=황기 8g, 함박꽃뿌리(백작약) 8g를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02)762-5510



○혜명양로원 봉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틈을 타 청담복지관내 청소를 솔선수범 하고 있는 청담중고 자원봉사단원들.

“땀과 이웃의 소중함 배웠어요”

청담중고 학생회 자원봉사

“전원은 110볼트인데 선공기는 220볼트더라고요. 좀더 신경써서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자원봉사에 참석한 가규상(청담중고 2)군은 혜명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루를 보낸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다. 어른들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는 이번 여름수련회를 자원봉사로 바꿔 불교학생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혜명보육원·양로원, 소적새마을 등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보살행을 펴는 자

원봉사를 펼쳤다. 첫날은 혜명보육원에서 둘째날은 혜명양로원에서 원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빨래와 방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실직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구 책 나눠주기 가두 캠페인도 시흥시 일대에서 벌였다. 셋째날에는 소적새마을에서 점심공양 보조 봉사도 가졌다. 2일째 밤에는 <반야심경> 사경과 철야정진도 실시했다.

이근우교장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교교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보살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불안한 마음 염불로 가라앉혀”

국내 첫 여자복싱경기 갖는 송경화양

“경기에 임하기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언제나 부처님을 불러요.”

올해 6월18일 복싱을 시작한 송경화(청담중고 2)양. 다이어트 시작한 복싱이 너무 재미 있어 선수생활을 고려해 볼 정도가 되었다.

평택 명법사에 다니며 불심을 키워왔던 송양은 요즘은 불교학생회 활동에 열심이다.

송양은 18일에는 평택 청담체육관에서 22살의 김정애씨(병정일복싱클럽)와 첫 번째 연습경기를 가졌다. 비록 판정패를 당했지만 대전자 김씨의 입술이 찢어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송양은 강한 판정력을 선보였다. 26일에는 국내 최초



로 여자복싱공식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운동을 제가 한다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태극기를 달고 뛰고 싶어요.” 송경화양은 복싱선수로의 포부를 이렇게 밝힌다. 강지연 기자

‘산업사회 위기’ 세미나



“자연과 인간성 상실-현대 산업사회의 위기”를 주제로 21일 열린 제2회 환경세미나에서 조봉연교수는 물의 사용에 대해서 자연에서 잠시 빌려 사용하듯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깝도록 되돌려 주는 자세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자교수(방송통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정영숙부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과 김경찬는설위원(불교신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단 신

80배를 할 예정이다.

(02)3431-7585

광동중고 여름수련

광동종합고등학교(교장 김교남)는 8월3일~4일 봉선사에서 불교학생회 3학년 학생 25명이 참석하는 3학년수련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생회는 이번 여름방학에 자원봉사와 정진수련도 계획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8월6일~7일 불교학생회 회원 45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원주 소적새마을로, 정진수련은 8월8일~10일 학교법당에서 1천

불광사 학생회 정진수련

불광사 학생회는 제16차 불광 하계 햇불 정진대회를 8월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간 팔공산 은해사에서 개최한다.

중고등학교생 1백여명이 참가하게 될 정진대회는 팔공산 등산, 팔공산 가람답사, 물놀이, 소재불공(불놀이), 자자포살, 등화사 참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학생회 포교

청소년교회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8월 한달 동안 서울지역 사찰학생회를 방문해 포교활동을 벌인다.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 의장단·간사단이 벌이는 이번 활동은 서울지역 불교학생회 현황 파악 및 교류방안을 찾아 학생회 활성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싹불자 자연탐구하며 참선공부

불암사 숲속학교 수련

불암사 어린이 숲속학교가 17일부터 19일까지 1백여명의 새싹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암사(주지 일면스님)에서 열렸다.

어린이 숲속학교에 통합한 새싹불자들은 어린이찬불가 배우기, 사찰 배치도 그리기, 참선공부, 108배 정진, 단력테스트, 물타탕고 소원불기, 수계식 등을 체험하며 불교와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야외에서의 곤충 관찰, 식물재첩, 고무마·감자 구워먹기 등으로 자연과의 친화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다.

강지연 기자

땀뿜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opia.com>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강의시간: 출강/통신: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주5일 수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월 31일까지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당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756-7258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무전장스님(본대학회장)·최봉수(동국대학교수)·주명철(동국대학교수)·정병호(동국대학교수)·오국근(동국대학교수)·박정(불교개방연구원)·차차석(동국대학교수)·김영태(동국대학교수)·김희우(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암도스님(교무원장)·권만준(동국대학교수)·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권기중(동국대학교수)·해원스님(동국대학교수)·윤일수(동국대학교수)·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한경섭(강원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서 주민등록등본 1부 빈명합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대학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불서보급사 ☎ 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 232-7542
-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